

해남군 로컬푸드직매장, ‘먹거리 선순환’ 선진모델

개장 3년 34만명 이용 90억원 매출
580농가 기획생산 787개 품목 출고
개장 대비 참여농가 2배 이상 늘어
출하수수료 제외 전액 농가소득화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에 34만여명의 소비자가 이용하면서 90여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먹거리 선순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개장한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3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총 34만여명의 소비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11만명 이상이 이용한 수치로 해남군 전체 인구(6만5000여명)가 일년에 1~2회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셈이다.

매출 또한 9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직매장에 참여한 중소 농가의 소득향상에 독특한 역할을 해냈다.

현재 해남군 로컬푸드직매장에는 580여 농가에서 연간 기획 생산을 통해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 공예품 등 787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개장 당시 270농가, 450품목의 직매장 참여 농가가 만 3년 만에 두배 이상 확대



해남로컬푸드직매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농특산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되면서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소농가의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월급받는 농업인’으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출하농가는 대부분 관내 소농가로 로컬푸드 매장에 매일 오전 생산된 신선 농산물들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으며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농가소득으로 직접 지급하면서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연중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중하우스 보급과 생산자 조직화, 출하품목 확대 등 생산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소농위주의 다품목 출하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인근에 대도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해남군의 사례는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선진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성장세에 힘입어 2022년 지역먹거리지수 우수지자체, 2023년 지역먹거리지수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고 전남 유일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직매장과 더불어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도 3년간 60여억원을 올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누적 매출 15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군에서는 매월 소비자 초청 농가 체험, 어린이 장보기 등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대한조선과 해남교도소 등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하는 판촉 활동도 병행해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개장 3주년을 맞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선순환 구축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내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도전하는 여성, 행복한 전남’을 슬로건(표어)으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취·창업에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지역일자리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취업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며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목포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및 목포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목포시, 나주시, 신안군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 160개 업체가 참여한다.

현장에서 직접 구인을 원하는 30개 업체가 참여해 1대 1 현장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며 박람회 참가가 어려운 130개 간접 구인업체는 채용게시판을 통해 채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박람회장에는 현장면접관(30개관), 취업컨설팅관(9개관), 창업체험관(10개관), 탄소중립&AI·메타버스존(4개관), 박람회부대관(10개관-운영본부, 일자리상담, 정보검색대, 의료지원, 박람회 접수 등), 청년여성 온라인 박람회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취업컨설팅관에서는 구직스트레스 검사, AI면접컨설팅,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창업체험관에서는 여성 소자본 창업 컨설팅 및 물품 판매, 여성 소자본 창업체험관(잇소잉마켓, 매듭달, 담은하늘꽃), 여성창업컨설팅관을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당일 누구나 현장에서 이력서 작성 후 구인 업체와 만나볼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여성간 고용형태 및 각종 미스매치(부조화) 해소를 취업연계 효율화를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5일 진도군에서 3쿠션 전국당구대회와 진도군당구연맹회장배 3쿠션 대회가 연이어 열려 800명의 전국 당구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뤘다.

진도군 제공

전국 당구 동호인 진도서 당구실력 겨뤄

진도군에서 ‘2024 진도아리랑배 3쿠션 전국당구대회’와 ‘2024 진도군당구연맹회장배 3쿠션 전남당구대회’가 연이어 열려 약 800명의 당구 동호인이 진도를 방문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2일간 열린 진도아리랑배 3쿠션 전국당구대회는 진도군체육회(회장 조규철)가 주최하고 진도군당구연맹(회장 김연일)이 주관하여 3쿠션 단일종목 대회로 열렸다.

개막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 장영우진도군의회운영위원장, 김인정 전남도의회의원, 목포당구연맹 윤종배 회장, 광양당구연맹 김종

화 회장, 순천당구연맹 서석현 회장, 해남당구연맹 양정호 회장, 고흥당구연맹 신동언 회장 등 관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국당구대회는 그 어느 대회보다도 치열한 512강 대회로 열려 총상금 1120만원과 함께 7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 김행직 선수의 특별 사인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치열했던 예선을 거친 후 32명이 본선에서 맞붙어, 우승은 이남호(군산 SJ·상금 400만원·석재 김용선 선생 작자그림 1점), 준우승 엄상식(나주 목사골우당탕·상금 200만원), 공동 3위는 이진선(목포

친구), 조용범(정읍 호남)이 차지했다.

13일에 열린 진도군당구연맹회장배 3쿠션 전남당구대회는 256명의 최고수들이 겨루어 마영종(목포 쏘비)이 영예의 우승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석재 김용선 선생 작자그림 1점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나영엽(광주 보스), 공동 3위는 이수열(진도 녹색), 김영목(해남당구연맹)이 차지했다.

진도군당구연맹소속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기량을 발휘했는데 전국당구대회에서는 본선 32강에 5명이 진출해 이태진 선수가 공동 5위에 올랐다.

전남당구대회에서는 본선 16강에 4명이 진출해 진도 녹색클럽 이수열 선수가 공동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목포 대성장학회, 2024년 장학생 모집

목포시 대성장학회(회장 김명환)가 2024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대성장학회는 대성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되었고 201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4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는 자녀가 가구당 2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해 선발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선발하고 초·중·고·대학생 장학금으로 총 6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생 모집 분야는 성적우수 장학금(중·고·대), 특기적성 장학금(중·고·

대), 저소득 장학금(중·고·대), 다자녀 장학금(초·중·고) 총 4개 분야이다.

신청자격은 부모가 공고일 기준 목포시 대성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의 자녀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오는 28일까지로 목포시 누리집 공고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대성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해안 노을길 전국 걷기 마라톤 개최 무안군, 18일까지 신청

무안군은 11월 2일 망운면 노을길 일원에서 2024 무안 해안 노을길 전국 걷기 및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회는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기좋은 도시 ‘워커블시티 무안’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했으며 무안군체육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는 오전 8시30분 개회식 후 9시 정각에 출발하며 노을길 해변을 따라 걷거나 달릴 수 있는 5km 코스와 마라톤 10km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비는 △5km 군민 1만5000원, 그 외 2만5000원, △10km 참가비 일반인 4만원, 매니아 3만원이며 참가자에게는 배 번호, 완주메달, 런닝화 또는 긴팔티 등이 제공된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마라톤협회 홈페이지(www.run1080.com)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부대행사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과 팬 사인회가 개최되며 참가선수 모두에게 현장에서 지급되는 무안사랑상품권 5000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솟품 영상 공모전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완도군이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해 ‘2024 완도군 솟품 영상 공모전’을 추진한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공모전은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공모 기간 내 제작한 영상 중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로 개인(팀은 3인 이하) 당 1편씩 출품이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완도에서 치유하자!’로 해양치유, 여행 치유(관광), 음식 치유(먹거리) 등 완도의 매력을 자유롭게 담은 1분 이내의 솟품 영상이어야 한다.

군은 접수된 작품을 작품성, 창의성, 활용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완도군 공식 SNS(유튜브)에서 투표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 등 수상작 8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작품 파일과 공모전 참가 신청서 등을 전자우편(credere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참신한 영상 콘텐츠가 많이 발굴되어 해양치유 중심지 완도, 완도의 다양한 관광자원, 먹거리 등이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